

SK,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협약

SK는 9월20일 과천 그레이스호텔에서 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출범식을 열고 복지단체들과 사업협약을 했다고 발표했다.

출범식에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신현철 SK 사장을 비롯해 부스러기사랑 나눔회, YMCA 및 한국아동복지연합회 등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.

SK는 소외계층 지원센터와 연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1000명에게 자동차 경정비 교육 및 실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5/09/21>